

문체론적 번역방법론:

*Le Petit Prince*의 영어·한국어 번역본 비교

민 난 식

(수원여대)

1. 서론

언어 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각 언어의 성격과 작용 방식을 보다 잘 찾아낼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발화의 의미가 아니라 한 언어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작용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법이나 어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표현된 의미를 제대로 옮기기 위해 어떤 시스템들이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번역이 올바르게 되었다 해도 간혹 어색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문체상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는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면서도 임의라기보다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선택된다. 특히 대상 언어의 문체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번역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비교문체론은 샤를르 바이이(Charles Bally)에 제기된 문체론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비네이와 다르벨네

(Vinay & Darbelnet)가 중심이 되어 실제 번역작업에 문체론적 연구를 적용한다. 처음 이들의 연구는 같은 어족에 속하는 인도 유럽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의 전이를 지배하는 방법들을 보다 잘 알게 되면 점점 보다 많은 경우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말블랑(A. Malblanc)은 모든 언어에 나타난 상이한 세계관을 찾아내는데 문체론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김효중 1998: 188 재인용).

같은 인도 유럽어족인 불어와 영어와는 달리,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의 특성상 비교 문체론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단의 어려움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이 방법은 번역에서 생기는 두 언어의 차이를 올바르게 대조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생각된다. 또한 개별 언어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착함으로써, 각 언어에 잠재된 특징과 실재를 왜곡됨이 없이 밝혀서 대상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1 번역과 문체론

번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라루스(Larousse) 대백과사전』에서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체하는 행위,” 혹은 “한 문서를 다른 언어로 재구성해낸 결과물”로 정의한다. 『로베르 언어대사전』(Le Grand Robert)에서는 “번역하는 행위 또는 방식이나, 한 언어로 언표 되어 있는 것을 그 의미적, 표현적 등가성을 지향하면서 다른 언어의 언표로 만드는 것”(박시현, 이향욱김 1976: 10, 김윤진 2000: 6)으로 정의한다.

즉 번역은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언어태가 아닌, 시공간의 좌표 내에 실현된 것으로서의 ‘언표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의미와 표현성이라는 이중적 등가성의 축 위에서 다른 언어의 ‘언표’로 전환하는 작업으로 보았다(6). 우리말 『동아 새 국어사전』에서는 “한 나라의 말로 된 글의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 바꿔 옮김”(이기문 1989)으로 풀이되어 있다. 즉 우리말 사전 정의는 번역의 목표를 글의 내용, 즉 의미로 잡고 형태의 이타성을 넘어선 의미의 동일성을 추구한다. 이에 비하여, 로베르 사전의 정의는 번역을 의미의 등가성뿐 아니라 표현적 등가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번역이 둘 또는 그 이상

의 언어 체계들 간의 상이성을 넘어서 인표들 간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작업일 경우, 두 언어 체계들 간의 상이성을 문체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고 번역을 문체상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며 문체론적 접근에 기초한 번역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들은 비네이와 다르벨네이다.

이들에 앞서 캣포드(J. C. Catford)는 그의 저서 『번역의 언어학적 이론』(*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에서 번역을 대조 언어학의 한 분야로 간주하였다. 즉, 번역을 언어의 일반적 이론에 따라 언어간의 관계유형과 관련하여 접근 하였다(1965: 20). 비네이와 다르벨네는 『불어와 영어의 비교 문체론』(*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이란 책에 ‘번역방법론’이란 부제를 붙여, 문체론적 접근에 기초한 영어와 불어의 번역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번역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 그들은 문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이가 구분한 외적 문체론의 개념위에 방법론적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들은 번역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기 위한 것”(1987: 20)이라고 말하면, 동시대에서도 두 언어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차이는 문체 때문이라고 보았다. 특히 언어마다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더욱 크게 차이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김정우는 그의 논문에서 “문체는 언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목표언어와 원천언어가 다른 구조를 가질 때, 양쪽 언어 사이의 문체적 변용은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1994: 7). 김효중은 “모든 언어는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기술할 수 있는 표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의미상으로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해도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을 문체론상의 섬세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테 있다”고 했으며(1988: 262), 안정효는 “원작자의 문장이 지닌 특성, 즉 문체의 성격을 파악해 분위기나 문체를 가능한 살려야한다”(2002: 86)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문학 세계를 알아야 하고 번역할 작품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며 번역할 문장의 특성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87).

1.2 비교 문체론적 번역 방법론

비교문체론은 구어의 정감적 요소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내적 문체론’에서 발전하였다. 내적 문체론이 한 언어 내에서 정감적 요소와 지적인

요소간의 관계를 다룬 것이라면, 비교 문체론은 둘 이상의 언어를 비교하여 각각의 언어에 대한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승권 1991: 229).

특히 비네이와 다르벨네는 번역에서 생겨나는 현상을 최초로 기술하고 분류하여 번역의 방법을 분석,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풍부한 예를 통해 두 언어 체계의 특성을 밝혀 번역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언어학습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도 이들의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또한 그들은 처음으로 개별적 사례 연구를 보여주어 번역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 요소에 기초한 미시적 연구는 텍스트의 전체적인 관련성에 소홀하기 쉽고, 반대로 텍스트의 총체적인 연구는 개별적 표현을 입증할 수 없는 결점은 있다. 그러나 최정화는 “목표언어에 치우친 번역의 허점을 ‘비교문체론’에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1998: 116).

번역작업의 출발점은 번역단위를 찾아내는 일로 사고 단위, 어휘 단위, 번역 단위는 모두 등가 표현들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고찰된 동일한 현실을 나타낸다. 번역단위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것도 있으며, 한 어구 또는 한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고 단위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숙어나 속담들은 단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듯이, 발화체의 사고 단위도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이를 의미단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단위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의미단위의 한정은 문장의 구조와 문맥, 어휘가 문장에서 차지하는 의미영역을 고려하여 시도 되어야한다. 번역의 단위로서 나타나는 의미단위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서 의미단위를 분류할 수 있고, 중요한 어휘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미 단위는 이러한 언어의 무한한 변화 현상 때문에 정확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가능한 상황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비교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번역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이런 번역 단위를 찾은 다음 번역어의 성격에 따라 거쳐야 할 번역의 절차와 방법에는 직접 번역과 간접 번역으로 크게 나뉘며 다시 상이한 7개의 조작의 사다리모 구분된다. 두 언어 상호간의 구조적인 차이를 내용과 문체상의 적절한 형태에 맞게 차용, 모사 축어역, 치환, 변조, 등가, 번안의 7가지 방법으로

증화시킨 것이다.

여기에 나온 예문들은 생 펙쥬베리의 *Le Petit Prince*이다. 영역본(ETT1)은 Richard Howard 번역(출판사: Harvest)의 *The Little Prince*이고, 또 다른 영역본(ETT2)은 Katherine Woods 번역(출판사: Skolastic)이다. 한국어 번역본(KTT1)은 동아출판사 편집부가 공동 번역한 『어린 왕자』이다. 다른 한국어 번역본(KTT2)은 책이 있는 마을에서 출판된 최복현이 번역한 『어린 왕자』이다.

2. 본론

2.1 첫째 단계: 차용

원천언어에서 목표언어로 옮길 때 한 낱말을 직접적으로 인수하는 번역의 모든 방식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배혜수는 차용어를 “다른 언어체계의 자료를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국어체계에 넣어서 그 사용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말이다(1997: 239)”라고 보고 굳이 구분한다면, 차용어는 능동적으로 유입시킨 말로, “외래어는 차용어를 넓은 의미로 포괄하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자국어에 무조건적 유입된 외국어”라고 보고 있다(정재훈 1997: 314). 윈터(Winter)는 차용 동기를 “절대적 필요성과 문화의 우월성”으로 보았고(1973: 135-48), 이종극은 한국어에서 영어의 차용 동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 ① 절대적 필요성.
- ② 우월적 문화에 대한 맹종성.
- ③ 편의주의의 입각한 임의성.
- ④ 특수목적에 따른 의도성내지는 재생산성. (정재훈 316 재인용)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미 번역본으로부터 수 천 개의 외래어를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차용이 행해지게 되는 기저에는 제반요인들이 다층적이며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치·경제적인 상호관계나 언어 혼합이 전제 될 때 일반적으로 차용동기를 알 수 있다. 그 차용의 경로도 문어뿐 아니라 구

어에 의해서도 유입될 수 있으나 결국은 문자에 의해서 정착되며, 규범적 범주 속에 넣어지게 된다.

ST : «J'ai vu une belle maison en briques roses, avec des géraniums des fenêtre et des colombes sur le toit...», elles ne parviennent pas à s'imaginer cette maison.

ETT1 : "I saw a beautiful red brick house, with geraniums at the windows and doves on the roof...," they won't be able to imagine such a house.

ETT2 : "I saw a beautiful house made of rosy brick, with geraniums in the windows and doves on the roof," they would not be able to get any idea of the house at all.

KTT1 : 만일 어른들에게 “장미 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가에는 예쁜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도 있었어요.” 라고 말해서는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생각해 내지 못한다.

KTT2 :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미 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있고, 지붕위에 비둘기가 있는…….”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해내지 못할 거예요.

위의 예문의 경우는 고유명사를 차용한 경우로 절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차용해야할 어휘들이다. 이 경우는 자국어로 대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로서 외래어 그 자체를 차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신조어 획득의 한 방법으로 어휘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첫 번째 예문에서 KTT1은 ST에 있는 ‘géraniums’이란 고유명사 대신 일반화시켜 ‘예쁜 화분’이라고 번역한 예도 있지만 고유명사인 경우 그대로 차용 번역하는 예가 훨씬 더 많다.

ST : « J'ai vu une maison de cent mille francs.» Alors elles s'écrient :
« Comme c'est joli!»

ETT1 : "I saw a house worth a hundred thousand francs." Then they exclaim, "what a pretty house!"

ETT2 : "I saw a house that cost \$20,000." Then they would exclaim:
"Oh, what a pretty house that is!"

KTT1 : 그들에게는 “십억 짜리 집을 봤어요.”라고 말해야한다. 그러면
 “야, 참 좋겠구나!”하고 감탄을 하는 것이다.
 KTT2 : “나는 십만 프랑 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탄성을 내지르지요.
 “얼마나 멋진 집일까?”

위 예문은 화폐 단위를 차용해 번역하거나 자국어의 단위로 대응 표현한 예이다. 원문 텍스트의 프랑을 ETT1에서는 그대로 차용해 썼지만 ETT2에서는 \$로, KTT1에서는 십억이라는 원단위를 사용했다. ETT2에서는 ST의 화폐단위를 차용해 사용했다. 번역가들은 이국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한 기법의 일환으로 ‘프랑’을 차용해 번역하는 예도 흔하다.

지금까지 원문텍스트에서 영어·한국어 번역으로 된 차용어를 살펴보았는데 영어 번역본의 차용어 번역이 한국어 번역본의 차용어 번역보다 그 회수가 훨씬 높았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본은 ST에서 차용한 어휘는 물론 영어에서 차용한 어휘가 많아 한국어가 영어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었다.

2.2 둘째 단계: 모사

모사는 특별한 종류의 차용어이다. 외국어에서 표현 양식을 빌려 그 구성 요소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차용과 모사는 TL로 통합 되어 의미의 변화를 가져와 가짜 짝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Jeremy Munday 2001: 56). 그러나 그 결과는 새로운 양식을 도입하면서 목표언어의 통사구조를 존중하는 표현의 모사가 되거나, 목표언어에 새로운 구문을 도입하는 구조의 모사가 된다. 즉, 결합은 메꾸되 차용은 하지 않으려하는 태도를 말한다.

허비와 히긴스(Herby & Higgins Newmark 1999: 18 재인용)는 모사를 문화적 치환의 5가지타입 중 하나라고 보았고, SL의 문법적 구조의 모델에 적합한 문화적 차용과는 다르며, ST를 축어역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모사와 번역의 구분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이는 월터(Walter)로 그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한정어와 피한정어의 순서를 유용한 기준으로 보았다. “ ‘한정어+피한정어’의 순서로 된 경우에는 모사로, ‘피한정어+한정어’의 경우에는 번역

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1988: 72). 예를 들면 ‘libre-penser’가 ‘free-thinker’로, ‘non-sens’가 ‘nonsense’가 되는 경우는 명백한 모사인 반면 ‘liste civil’이 ‘civil list’, ‘question préalable’이 ‘previous question’이 되는 경우는 단순한 번역이라고 했다. 즉 불어의 고유한 순서인 ‘피한정어+한정어’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영어의 ‘한정어+피한정어’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은 의도적인 모사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소 가운데 하나를 차용하여 기존 어휘에다 부가하는 방식인 의미의 차용과 외래 어휘를 번역하여 받아들이는 방식인 모사는 근본적으로 분류론적인 성격을 달리하며 무엇보다도 양자가 구별되는 것은 모사가 기존에 없는 새로운 통합 기호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반면에 의미의 차용은 형태의 변화나 새로운 어휘의 생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조셋프 레이 드보브(J. Rey-Debove)는 모사를 할 때 윌터와는 달리 ‘한정어+피한정어’의 순서 자체는 중요성을 두지 않고 다만, 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 그대로 옮겨지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모사가 아니라 번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1980: 10). 예를 들면 영어의 ‘self-service’가 불어에서 ‘libre-service’가 되었다면 모사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비네이와 다르벨네는 다음과 같이 모사의 종류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었다(ibid 27). 첫 번째 표현의 모사는 목표어의 통사적 구조는 존중하되 새로운 표현법을 도입하는 모사로, 예를 들어 영어의 ‘Compliments of the Season!’을 불어의 ‘Compliments de la saison!’(근하신년)로 번역한다. 두 번째 언어구조상의 모사는 목표 언어 상에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는 모사로 영어의 ‘science-fiction’을 불어에서도 ‘science-fiction(공상과학)’으로 번역한 예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 차이를 살펴보았지만 모사라는 차용방식 자체가 외래 어휘를 번역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없는 새로운 통합 기호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이나 외래 어휘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을 경우에 그것을 풀어쓰게 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본다.

ST : Lorsque j'avais six ans j'ai vu, une fois, une magnifique image, dans un livre sur la forêt vierge qui s'appelait Histoires vécues. ETT1 :

Once when I was six I saw a magnificent picture in a book about the jungle, called True Stories.

ETT2 : Once when I was six years old I saw a magnificent picture in a book, called True Stories from Nature, about the primeval forest.

KTT1 : 내가 여섯 살 나던 해에 언젠가 <체험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시림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KTT2 : 나는 여섯 살 때에, 한번은 『모험이야기』라는 처녀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어요.

원문텍스트의 ‘la forêt vierge’를 ETT1에서는 ‘jungle’이란 일반화된 단어로 번역했으나 ETT2에서는 ‘the primeval forest’는 원문과 모사된 요소들의 순서가 반대인 경우이다. KTT1에서는 ‘원시림’, KTT2에서는 ‘처녀림’도 원문과 요소들의 순서가 반대이지만 KTT2가 원문의 의미를 자구적인 축어역으로 모사했다. ‘Histoires vécues’는 ETT1·2에서는 ‘True Stories’로 요소들의 순서가 반대로 모사되었지만 KTT1은 ‘체험담’, KTT2에서는 ‘모험이야기’로 원천언어의 요소들이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변안에 가까운 모사가 되었다.

ST : Il avait fait alors une grande démonstration de sa découverte à un congrès international d'astronomie.

ETT1 : A Turkish astronomer, who had then made a formalmonstration of his discovery at an International astronomical Congress.

ETT2 : On making his discovery, the astronomer had presented it to the International astronomical Congress, in a great demonstration.

KTT1 : 그는 그때 국제 천문학 총회에서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 굉장한 증명을 해보였다.

KTT2 : 그때 이 천문학자는 국제 천문 학회에서 자기가 발견한 행성에 대해서 떠들석하게 발표를 했어요.

원문의 ‘피한정어+한정어’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영어와 한국어 번역본은 ‘한정어+피한정어’의 순서로 모사된 요소들의 순서가 원문과 반대인 모사의 경우이다.

2.3 셋째 단계: 축어역

축어역은 특별한 문체론적 고려 없이 단순히 문법적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어 대 단어의 번역으로, 원천언어의 어순과 단어가 목표 언어에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이다. 특히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언어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번역이지만 서로 문화권이 다른 언어들 사이의 번역, 예를 들면 불한 번역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번역학자들은 번역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잘못이 SL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낱말이 역어에 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흔히 지적한다. 비네이와 다르벨네는 “구조적, 메타 언어적 요구와 의미가 완전히 보존될 경우에만 축어역을 사용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축어역은 원천언어 텍스트를 적절한 문법적, 관용적 목표언어 텍스트로 전이할 수 있으므로 번역자는 목표언어의 언어적 예측성만 봐도 된다. 직역은 동일어족의 언어간 번역이나 동일문화의 번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ST : Mais toujours elle me répondait : «C'est un chapeau.»

ETT1 : But he would always answer, “That's a hat.”

ETT2 : But, whoever it was, he, or she, would always say: “That is a hat.”

KTT1 : ‘모자로구먼.’하는 그들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나는 실망했다.

KTT2 : 그러나 항상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건 모자로군.”

ST에서 ETT1·2가 축어역인 경우는 많으나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축어역이 불가능하다. 위 예문의 경우 KTT1은 주어, KTT2는 부정 관사가 생략된 축어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ST : «Ça c'est la caisse. Le mouton que tu veux est dedans.»

ETT1 : “This is just the crate. The sheep you want is inside.”

ETT2 : “This is only his box. The sheep you asked for is inside.”

KTT1: 그리곤 “이건 상잔데, 네가 바라는 양은 그 안에 있다.”하고 내 밀었다.

KTT2 :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 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 있다.”

ST에서 ETT1·2로의 번역은 단어 대 단어로 번역된 예이다. KTT1·2의 경우에는 수식하는 말이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놓이는 즉, 관계절이 왼쪽으로 가지를 쳐가는 왼쪽 가지치기 언어이다. 인도 유럽어족은 오른쪽 가지치기 언어인 기존의 통사구조 차이 말고는 비교적 축어역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2.4 넷째 단계: 치환

치환은 하나의 품사를 전언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다른 품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캣포드(Catford)는 이를 ‘shift’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특정한 번역절차 및 주어진 한 언어 내에 적용될 수 있으며, 문자적 번역의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문법적으로는 맞더라도 역어의 결과 맞지 않을 때 흔히 사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품사를 다른 품사로 대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단어의 뜻은 같지만 그 문법적인 성격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ST : «D'où viens-tu, mon petit bonhomme? Où est-ce "chez toi"? Où veux-tu emporter mon mouton?»

ETT1 : “Where do you come from, little fellow? Where is this ‘where I live’ of yours? Where will you be taking my sheep?”

ETT2 : “My little man, where do you come from? What is this where I live, of which you speak? Where do you want to take your sheep?”

KTT1 : “애야, 너 어디서 왔니? 네 집은 어디냐? 내 양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그러니?”

KTT2 : “꼬마 신사야, 넌 어디서 온 거니? 네가 사는 곳이 어디냐? 그 양을 어디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

ST에서는 ‘전치사+강세형 인칭대명사’를 썼다. 불어에서 인칭대명사의 강세형은 단독으로나 전치사와 함께 쓸 수 있으며 주어나 보어를 강조할 때나, 전치사를 동반한 보어에서만 쓰이며 강세형의 경우 반드시 우리말로 옮겨야 한다. 인칭대명사의 약세형인 ‘je, tu, il, ils, elle’의 경우 대개는 우리말로 옮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는 구별된다. ETT1과 ETT2에서는 부사절로 치환되었으며 KTT1에서는 주어로 쓰인 명사구로 치환되었다. KTT2에서는 명사절로 치환되었다. 원문의 강세형 인칭대명사를 잘 표현해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ST : J'avais défait son éternel cache-nez d'or.

ETT1 : I had loosened the yellow scarf he always wore.

ETT2 : I had loosened th golden muffler that he always wore.

KTT1 ; 나는 그가 끌려 본적이 없는 금 목도리를 풀렀다.

KTT2 : 나는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금빛 목도리를 풀어졌어요.

ST의 'éternel'의 품사인 형용사는 ETT1·2에서는 부사로 치환되었다. KTT1에서는 치환과 변조가 복합되어 번역된 예로 원문에서 '영원한, 영속적인' 의미로 표현된 형용사가 '-없'에서는 부정의 의미를 '-는'에서는 수식접미사의 형태로 번역되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 역할로 치환되었다. KTT2에서는 부사로 치환되었다.

2.5 다섯째 단계: 변조

번역은 언어를 차별화 시키는 표현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변조의 방법들이 번역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점을 달리하는 언어표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조에 의한 번역은 “등가의 의미에 대한 표현 방법의 차이를 파악해서 번역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이승권 2001: 614). 변조는 직역이나 치환이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나 목표언어와는 잘 어울리지 않아 어색할 때 사용한다. 비네이와 다르벨네는 전언상의 변화를 변조라 정의하고 변조의 유형을 임의적 변조와 의무적 변조로 구분하였다. 임의적 변조와 의무적 변조의 구분은 변조의 정도에 따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두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조된 표현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유형을 의무적 변조라 한다면, 번역가에 따라 번역어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의 변조를 임의적 변조라 할 수 있다. 의무적 변조는 학습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는 하나의 용법으로 굳어지게 되는 반면에, 임의적 변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풍부한 표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번역과정에서 변조가 일어나는 언어 층위는 어휘에서부터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로이벤 쾰트르(Van Leuven-Zwart)는 변조를 두 가지 유형,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것은 ST를 TT로 전이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말하며 일반적인 방법은 TT로 전이하는데

있어서 좀더 포괄적인 수준에서 행해지는 번역”이라고 했다(Newmark 1999: 66 재인용).

	임의적 변조	의무적 변조
불어	Il est facile de démontrer..	le moment où
영어	It is not difficult to show...	the time when...

비네이와 다르벨네는 직접 번역의 결과가 아무런 의미도 없거나, 원문의 의미와 다른 뜻이 되거나, 구조상 혹은 화층상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간접번역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간접 번역에서도 특히 치환과 변조가 중요하다. 간접 비교문체론의 방법 중 이 두 가지만을 번역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케(H. Chuquet)와 파이야르(M. Paillard)는 이 두 방법의 문제점으로, 치환의 경우에는 분석은 비교적 쉽지만 늘 자연스럽게 활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변조의 경우에는 그 분석이 여러 문법미론과 어휘미론의 개념들의 고려를 요하기 때문에 그다지 친숙치 못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ST : Je regardai donc cette apparition avec deux yeux tout rondes d'étonnement. N'oubliez pas que je me trouvais à mille milles de toute région habitée.

ETT1 : So I stared wide-eyed at this apparition. Don't forget that I was a thousand miles from any inhabited territory.

ETT2 : Now I stared at this sudden apparition with my eyes fairly starting out of my head in astonishment. Remember, I had crashed in the desert a thousand miles from any inhabited region.

KTT1 : 그래서 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그 꼬마를 쳐다보았다. 그때 나는 그 꼬마가 유령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내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천 수만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 문이었다.

KTT2 : 어쨌든 나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 꼬마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을 내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ST의 'Noubliez pas'의 축어역은 ETT1의 'Don't forget'만이 ST를 축어역으로 번역했다. ETT2는 'remember'로 번역한 예는 변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KTT1, KTT2에서도 '알고 있다, 기억하다' 등의 의미로 표현해 ST의 부정문으로 표현한 문장을 TT에서는 긍정문으로 변조시켜 얻은 전언체의 변화이다.

ST : Mais la fleur n'en finissait pas de se préparer à être belle, à l'abri de sa chambre verte.

ETT1 : But the flower continued her beauty preparations in the shelter of her green chamber,

ETT2 : But the flower was not satisfied to complete the preparations for her beauty in the shelter of her green chamber.

KTT1 : 그러나 꽃은 계속해서 푸른 방속에 숨어 치장을 하고 있었다.

KTT2 : 그러나 꽃은 초록빛 방에 숨어 계속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었어요.

ST 'n'en finissait pas' 부정문을 ETT1은 'continued'라는 긍정문으로 변조시켰으며, KTT1·2에서도 '계속해서, 또는 '계속' 이라는 긍정문으로 변조시켰다. 또한 ST에서 동사가 부사로 치환되어 복합 방법에 의한 번역이 되었다. ETT2만이 부정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was not satisfied'라는 표현으로 번역해 7번째 단계인 번안을 통한 번역을 했다.

2.6 여섯째 단계: 등가

두 텍스트가 서로 완전히 다른 구조적, 문체적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상황을 옮기는 것이 등가의 경우이다. 즉,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므로 뜻은 같으나 문장구조나 문체가 전혀 다른 표현의 번역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종종 통사적 성격 때문에 이용되며, 메시지의 총체성에 관심이 있다. 대부분의 등가는 의무적이고, 고유어법의 어법적인 목록, 상투적 문구, 속담, 형용사적인 어법 등에서 사용된다. 속담, 격언, 고유어법, 감탄사 등의 번역의 예에서 이 방법을 빈번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속담의 경우에 대부분 문화의 경우와는 달리, 타문화와의 상호교류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특유한 상황과 조건하에서 만

들어진다. 김경희는 광의의 속담을 속담과 속언으로 분류하면서 속담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로 예부터 전해 오는 “전통성, 민간의 통속성, 교훈성에 ‘쾌미감’을 가미해서 동반해야한다”고 했다(2001: 628 재인용). 또한 속담은 굳어진 표현의 일종으로 랑그 층위에도 속하고 문법적, 지시적인 관점에서 자율성을 지닌 발화로서 완전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어 담화층위에도 속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속담의 복합적인 위상에서 오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고려하고 모든 속담에 내재하는 속담의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함축의미를 재 표현해 주면서 굳어진 표현으로서의 속담의 특징을 재현해 줄 수 있는 번역방법이 있다.

목표언어의 기존 속담들 중에서 원천언어의 속담의미와 등가관계를 나타내는 속담을 찾아 등가에 의한 번역을 해 주는 것이 속담이 지닌 의사소통 성분들에 대한 충실도가 높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황경자는 그의 논문에서 속담은 “비교 문체론에서 제시한 번역 방법 중 하나인 등가에 의한 번역으로 귀착 된다”고 했다(2001: 21). 즉 등가에 의한 번역으로 목표언어에서 원천언어 속담과 가능한 의미가 일치하는 대응속담을 찾는 것이다. 르드레르(Marianne Lederer)는 이를 “등가에 의한 코드 변환”이라고 했다(1994: 120). 만일 목표언어에서 이런 등가의 속담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석 번역의 과정을 거쳐 속담의 의미에 대한 등가적 표현을 창출해야 한다. 원천언어 속담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번역에서 목표언어에서 등가속담을 결정할 때나 기존 등가속담이 존재하지 않아 새롭게 번역을 하게 될 때 요구되는 것이 등가기준이다.

여기에서는 목표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같은 의미의 속담이나 표현을 대치하는 방법으로 등가 역을 통한 번역의 예를 살펴본다.

<표> 세 언어 속담의 대조분석

불어	영어	한국어
Il pleut a seaux/des cordes.	It is raining cats and dogs.	비가 억수같이 쏟아 진다.
Deux patrons font chavirer la barque.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A Rome comme à Rome.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성인도 시속(時俗)을 따른다.
Deux avis valent mieux qu'un.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s.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C'est du caviar pour le peuple.	Cast not you pearls before swine.	돼지 목에 진주.
Parler est bien, se taire est mieux.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침묵은 금이다.

다음은 감탄사를 등가에 맞게 번역한 예들이다.

ST: -Hem! hem! lui répondit le roi, qui consulta d'abord un gros calendrier, hem!hem! ce sera vers...vers...ce sera ce soir vers sept heures quarante!

ETT1 : "Well, well!" replied the king, first consulting large calendar. "Well, well! That will be around... around. That will be around...around...that will be tonight around seven-forty!

ETT2 : "Hum!Hum!" replied the king; and before saying anything else he consulted a bulky almanac. "Hum!hum! That will be about-about-that will be this evening about twenty minutes to eight.

KTT1 : “흠! 흠!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들여다 보고 나서 대답했다. “흠! 흠! 에 그건.....그건...... 그건 저녁 일곱 시 사십 분경이겠노라”¹

KTT2 : “에헵!에헵!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들추며 대답했어요. “그것은.....오늘 저녁...그것은 오늘 저녁 일곱시 사십 분경이 될 것이니라!”

ST : «Ah! je me réveille à peine... Je vous demande pardon...Je suis encore toute décoiffée...»

ETT1 : “Ah! I'm hardly awake... Forgive me... I'm still all untidy...”

ETT2 : “Ah! I am scarcely awake. I beg that you will excuse me. My petals are still all disarranged.....”

KTT1 : “오! 겨우 깨어났군.....미안해요.....아직도 온통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요.....”

KTT2 : “아! 전 이제 겨우 잠에서 깨어 났답니다.....미안해요.....아직 머

리도 엉망이고…….”

위 예문에서 나타난 감탄사는 등가번역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두 언어의 텍스트가 문체나 구조가 전혀 다르면서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전혀 다른 표현의 번역을 의미하며 속담번역이 등가의 가장 완벽한 경우이다. 그러나 *Le Petit Prince*에는 인용할 만한 속담이 표현되어있지 않았다.

2.7 일곱째 단계: 번안

원문텍스트에 언급된 맥락이 목표언어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절차가 번안이며 따라서 재창조의 형태가 필요하다. 문학 번역사에서는 번안 방법이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시대에 지배적인 번역 조작 방법이었다. 비교 문체론에서는 어떤 원천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파악되는 사태를 목표언어의 의사소통상의 연관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비교되는 기능을 지닌 사태로 대체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모나 베이커(Mona Baker)는 언어간에 서로 “문화적으로 맞지 않을 때 상황적 등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번역절차로 번안을 정의 한다(1991: 6).” 뉴 마크(New mark)도 번안을 번역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원천언어가 나타내는 상황이 목표언어 문화에는 존재 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 된다”고 보았다(1999: 4). 박용삼은 이 방법을 “원천언어 텍스트가 목표언어에서 다만 원본작품에 대한 출발점이 될 뿐이다”라고 했다(2003: 83). 번안의 한 예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ST : «Je suis content que tu aies trouvé ce qui manquait à ta machine.

Tu vas pouvoir rentrer chez toi...

ETT1 : “I'm glad you found what was the matter with your engine. Now you'll be able to fly again...”

ETT2 : “I am glad that you have found what was the matter with your engine.” he said. “Now you can go back home-”

KTT1 : “기계고장을 고치게 돼서 참 좋아. 이젠 아저씨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KTT2 : “정말 기뻐요. 아저씨가 비행기를 수리했으니 말예요. 아저씨는 집에 갈 수 있을거예요…….”

ST의 ‘monquer’는 여기에서는 ‘부족하다’, 또는 ‘빠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ETT1·2에서는 ‘what was the matter’로 번안되어 번역되었다. KTT1에서는 ‘고치다’로, KTT2는 ‘수리하다’로 번안되어 번역되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부적절한 번역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ST : -Pour les uns, qui voyagent, les étoiles sont des guides. Pour d'autres elles ne sont rien que de petites lumières. Pour d'autres, qui sont savants, elles sont des problèmes Pour mon businessman elles étaient de l'or.

ETT1 : “For travelers, the stars are guides. For other people, they're nothing but tiny lights. And for still others, for scholars, they're problems. For my businessman, they were gold.”

ETT2 : “For some, who are travelers, the stars are guides. For others they are no more than little lights in the sky. For others, who are scholars, they are problems. For my businessman they were wealth.”

KTT1 : “여행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엔 별은 안내인이야. 어떤 사람들에게엔 별이 조그만 빛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고, 학자인 어떤 사람들에게엔 별은 문제 거리지. 그 상인에게는 금이고.”

KTT2 : “여행을 하는 사람에겐 별은 길잡이예요. 어떤 사람에겐 작은 빛에 지나지 않아요. 학자에게는 별은 문제 거릴것지요. 내가 만난 상인한테 별은 돈이고요.”

ST의 ‘l'or’를 ETT1에서는 축어역인 ‘gold’로 대응 번역했지만, ETT2에서는 ‘wealth’로 번역했다. KTT1은 축어역인 ‘금’으로 번역했지만 ETT2는 ‘돈’이라는 어휘로 번안을 했다.

3. 결론

지금까지 문체론에 근거한 번역방법론에 의거해 생텍즈베리의 *Le Petit Prince*를 7단계로 분석해본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직접번역에서는, 차용, 모사, 축어역 세 단계가 불어의 영어 번역본이 한국어 번역본보다 빈도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문과 영어가 동일어족이므로 문법적, 통사적 구조상의 유사한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특히 차용에서는 한국어 번역본의 경우 원문에서 차용한 어휘와 거의 동일하게 영어로부터 어휘를 차용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원문도 영어로부터 차용한 어휘가 있었지만 한국어 보다는 빈도수가 적었다. 특히 한국어에서 영어를 차용하는 방법은 절대적인 필요성 내지는 우월한 문화에 대한 맹종으로 방치하다시피 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간접번역에서는 직접번역과는 달리, 원문에서 한국어 번역시 변조, 번안에서 그 빈도수가 훨씬 높았다. 특히 변조가 한국어 번역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관점의 차이로 인한 임의적인 변조인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의 변조, 수동문의 능동문의 변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치환에 있어서는 영어나 한국어 번역본에 거의 비슷한 빈도수로 나타난 것을 보면 동일어족사이에도 품사의 치환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등가는 문체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하면서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므로 두 번역본 다 가장 빈도수가 적게 나타난 번역방법이었다.

원문 텍스트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시 비교문체적인 관점에서 조사, 분석해보았다. 동일어족간의 비교인 불·영 번역은 언어의 통사적, 형태적 구조 및 동일문화권에 속해있으므로 원문의 표현을 큰 손실 없이 목표언어 독자들이 접할 수 있었다. 반면, 불·한 번역시 상이한 통사적 구조 및 문화권에 속해있으므로 상당히 번안된 원문을 목표언어 독자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추상적인 표현인 원문에 비해 두 번역본은 구체적인 표현을 선호하므로 번역시 문장이 증폭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한 번역시 한국어로 번역된 두 번역본을 분석해 결과 번역 상 난점이 있는 경우 한국어 번역본은 생략을 하거나 영어 번역본을 중역해 놓은 경우가 많았다. 불·한 번역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치하는 표현을 찾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번역가는 의미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런 후 의미의 증감을 보상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해야한다. 그런 방법 중 문체론에 의거한 번역방법론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좋은 번역은 좋은 문체에서 나온다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 2002. 「문화차이의 번역에 관한 고찰」. 『불어불문학』 50. 불어불문학 회. 625-52.
- 김윤진. 2001. 「문화충돌과 번역문제」. 『불어불문학회』 45. 불어불문학회. 25-51
- 김효중. 1998. 『번역학』. 서울: 민음사.
- 박시현 · 이향 옮김. 2003.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Christine, Durieux. 1962. *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
- 박용삼. 2003. 『번역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배해수. 1997. 「어휘」. 『한국어 능력평가』.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서울: 국학자료원. 231-283.
- 안정효. 2002. 『번역의 공격과 수비』. 서울: 우석 출판사.
- 이승권. 1991. 「번역과 비교문체론」. 『어학연구』 3. 순천: 순천대학교. 225-53.
- 지광신, 최경은, 권선형 옮김. 2003. 『번역의 언어학적 문제』. 한국문화사. (Hans-Jürgen Diller & Joachim Komelius. 1978. *Linguistische Probleme der Übersetzung*.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 정재훈. 1997. 「영어의 한국어로의 굳힘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지』 14. 이중언어학회. 314-21.
- 최정화. 1998. 『통번역 입문』. 서울: 신아사.
- 황경자. 2001. 「프랑스어 속담번역에 관한 연구」. 『불어불문학연구』 48. 불어불문학회. 746-770.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atford, J. 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UP.
- Humbley, J. 1974. "Vers une typologie de l'emprunt linguistique". Cahiers de

- lexicologie, N. 25, Paris Didier-Larousse.
- Rey-Debove. J. & Gagnon, G. 1980. *Dictionnaire des Anglicismes*, Paris, Robert.
- Lederer, M.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le modèle interprétatif*. Hachette, Paris.
- McMahon, April. 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P.
- Newmark, Peter(1998) : *A textbook of translation*. Printed and bound in Great Britain by Redwood Books, Trowbridge, Wiltshire.
- Veunuti. Lawrence. 1999.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inay, J. P. & Darbelnet, J. 1997. *Stylistics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nglais*. Paris: Didier.
- Walter, H. 1988. "Typologie des emprunts lexicaux: Les anglicismes à l'époque de la Révolution", *Cahiers du Centre Interdisciplinaire des Sciences du langage*, N. 7, Toulouse, Université le Mirail.
- Winter, Warner. 1973. "Areal linguistics: some general considerations" In Sebeok(ed.).



к с і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s of Comparative Stylistics for Translation

Min Nan-sik
(Suwon Women's College)

This study analyzes the methods of comparative stylistics according to the translation theory of methodology of J. P. Vinay & J. Darbelnet, who have sought translation solutions based upon Bally's methods. For the sample analysis, this study adopts translated French-English and French-Korean texts of *Le Petit Prince* by Antoine de Saint-exupéry.

This study produces the following seven methods of translation and comes to a conclusion as follows: In the French-English translation, the three direct translation methods of borrowing, calque and literal translation, are frequently used. It's because French and English belong to the same language family, showing the similarities in grammar and syntax. In the French-Korean translation, the indirect translation methods of modulation and adaptation are used more frequently than in the French-English translation. Especially the method of modulation is frequently used for the French-Korean translation. The method of transposition shows much the same frequency in the French-English text and French-Korean text, which means that the transposition of word class happens even in the same language family. The method of equivalence is least used in the two translated texts.

This study has dealt with the contrastive analysis of translated French-English and French-Korean texts. I hope the translation methods of comparative stylistics of this study will be good solutions for translators.

▶Key Words: comparative stylistics, borrowing, calque, literal translation,
transposition, modulation, equivalence, adaptation

민난식

수원여자대학 영상학부 외래교수/번역학

연락처: 031)792-6558

논문투고일: 2005년 10월 25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05년 12월 10일

K C I